

# '영화소풍' 무주산골영화제 폐막

김응수 감독 '초현실' 전북영화비평포럼상  
신동석 감독 '살아남은 아이' 무주관객상  
김의석 감독 '죄 많은 소녀' 뉴비전상 수상  
올해도 산골정취 넘치는 영화축제 호평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폐막식이 25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조직위원장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산골친구들과 감독, 배우, 그리고 일반 관람객 등 1백 여 명이 참석해 지난 5일 간의 영화소풍의 여정을 되짚어 보는 영화제 스케치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장편경쟁 부문 '창' 섹션에 출품됐던 영화들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즐겼다.

'창' 섹션에서 상영됐던 영화 9편 중 한국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영화에게 수여하는 뉴비전상(대상)에는 '죄 많은 소녀-감독 김의석'이 선정돼 상금 1천만 원을 받았으며, 무주산골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상영돼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김의석 감독은 "아름다운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이 영화로 많은 분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 '초현실-감독 김응수'는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들이 주는 전북영화비평포럼상(상금 3백만 원)을 수상했다. '살아남은 아이-감독 신동석'은 영화제를 찾은 관객 투표를 통해 관객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영화에 수여하는 무주관객상(상금 2백만 원)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경쟁부문에 올라온 9편의 작품들 모두 개성과 재치, 그리고 의미로 무장한 훌륭한 작품들이었다"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영화소풍을 지향하는 산골영화제의 비전,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한국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혀준 작품들을 선정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황정수 조직위원장은 폐막사를 통해 "여섯 번의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무주산골영화제를 살아 숨 쉬게 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한 원동력은 바로 관객 여러분이었다"라며 "한결같은 사랑,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함께 될 수 있는 휴양영화제, 무주에서

만 즐길 수 있는 자연영화제, 무주니까 가능한 산골극장을 만들기 위해, 또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축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화발전에 기여하는 영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시네마 리플레이 : 좋은 영화 다시보기'를 주제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무주읍 예주문화관과 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무주전통문화의 집, 향토산지연휴양림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개막작 <AASSA, 필름 심청>을 비롯한 총 27개국 77편의 영화와 함께 이병률, 정인, 에디킴, 데이브레이크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유월의 숲(영화+음악+대화)을 비롯해 가족 프로그램과 산골미술관, 산골책방, 산골공방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폐막식이 25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됐다.

## ▶▶ 공연 전시 ◀◀

### 퓨전국악 '김제로 온재비', 2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나이불문 모두가 청춘이로다. 따뜻하고 열정 가득한 신명나는 퓨전국악 공연 한마당 '김제로 온재비'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2009년에 창단된 '재비'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예술인을 일컫는 순수 우리말로 9명의 연주가 각자의 재능을 바탕으로 대금, 가야금, 보컬, 대피리, 태평소, 건반, 해금, 타악, 아쟁 등 다양한 악기를 자유롭게 오고가며 관현악 또는 밴드 스타일 등 자유로운 무대 구성으로 신명나고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퓨전국악 공연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기존 국악콘서트의 틀을 깬 젊은 패기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음악들과 함께 이 시대 고달픈 청춘을 살아가는 재비의 꿈과 열정,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노래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과 더불어 과격적인 무대 연출로 눈과 귀가 모두 지루할 틈이 없는 신명나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스타 발굴' ... 정읍 메이플스타 오디션 내달 1일부터 참가자 모집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는 스타 오디션 페스티벌인 '제2회 메이플스타' 참가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모집한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Free(젊음의 자유)·Fervor(젊음의 열정)·Challenge(꿈을 향한 도전)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루는 케이팝(K-POP) 부문, 개그 부문, 연기 부문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메이플스타 오디션의 전국화를 위해 가수 분야(별 대중가요) 참가자 1000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만 9~24세 전국 청소년이며, 1차 예선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대 도시를 돌며 300개 팀을 1차 선

발한다.

이후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합격한 15~20여 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집중 트레이닝을 거쳐 '제20회 정읍시문화제' 행사 기간 중인 오는 10월 21일 오후 6시 정읍시공원 특설무대에서 선보인다.

최종 우승자인 메이플스타(대상)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디지털 싱글앨범제작,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및 축제 축하공연 출연 기회 제공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시상금이, 장려상과 인기상 각 3명에게도 소정의 시상금이나 상품권이 수여된다.

앞서 시는 엔터테이너 자질이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

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당시 전국에서 재능있는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21세기 오디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제1회 오디션이 많은 청소년의 호응과 성원으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재능과 꿈,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꿈을 실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익산의 역사적 설화 무용으로 담다

#### 왕도(王道) - 천년의 약속 내달 6일 익산예술의전당서

익산의 역사적 설화이야기를 담은 왕도(王道) - '천년의 약속' 공연이 오는 7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지난 시립무용단(감독 박종필)의 창단20주년 왕도(王道) - 기억의 열쇠를 새로운 역사 속에 재조명한 작품으로 백제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불교의 영향이 무왕에게 금마저로의 새로운 천도를 꿈꾸게 하고 그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 인간적인 고뇌와 왕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무용극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특히 남성 군무들의 다이내믹한 정면과 아름답고 비장한 여성무용수들의 군무가 공연 전반을 이루며 주인공 정수미(선화-익산시립

무용단 단원)와 최희중(무왕-국립무용단 단원) 그리고 박주상(흑룡-동아콩글 금상) 등의 듀엣은 한층 무르익은 춤사위로 아름다움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시립무용단의 노고와 갖든 왕도(王道) - 천년의 약속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타임캡슐을 타고 역사 속으로 떠나는 재미 있고 유익한 시간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초대권 배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티켓 소진 시까지이며 초대권 배부처는 익산예술의전당, 소리문화예술회관, 도서관(모현, 영동, 부송), 행정복지센터(함열읍, 중양동, 동산동, 신흥, 영동1동, 어양동, 삼성동) 등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